# '맑고 밝은 本鄕의 뜻을 이곳에'

## 12월 8일 재포천충청연합회 創立

재포천충청연합회 창립식이 12월8일 오후6시30분부터 포천중앙웨딩홀 5층에서 2000여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재포천충청연합회(회장 강흥식) 창립식이 12월8일 오후6시30분부터 포천중앙웨딩홀 5층에서 200여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날 창립식을 통해 재포천충청연합회는 "우리는 충청인으로서 자부와 긍지를 가지고 선조 부모님께서 영주하셨던 고향의 얼을 상기하며 그 유지를 받든다는 목표 하에 동향인으로서 뜻을 같이 하며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상호간에 처한 처지를 이해하며 믿음을 중요시 하고 예의를 지키는 상회의 부끄럼 없는 단체가 어우러 지도록 상호간 이해와 양보로 인간미를 추구하고 맑고 밝은 본향의 뜻을 이곳에 심는다"는 충청인의 자랑을 발표했다.

충남 논산 출신으로 경기도지사를 지낸 이인제 국회의원은 축사를 통해 "충청도 사람들은 나라가 어려울 때 목숨걸고 앞장서왔다"며 "명예와 자긍심과 애국심으로 국민을 하늘처럼 떠받드는 정권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말했다. 이어 이인제 의원은 정지용 시인의 '향수'라는 시를 낭송하기도 해 잠시나마 고향을 생각하는 분위기가 연출되기도 했다.

박윤국 포천시장은 "포천은 신도시사업 추진 등으로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열심히 일해 나가는데 충청도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강흥식 재포천충청연합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창립식을 갖고 앞으로 다양한 활동을 통해 포천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 "22년 미용봉사 감사해요"

## 리안헤어 김종임 원장 포천시장 표창

질을 해주었으며 준 것으로 알려졌다.

1984년부터 22년간 자비를 들여 영북면 보화보육원 원생들에게 매월 미용봉사를 해온 김종임(56)원장이 포천시장 표창장을 받았다.

동대문구 제기동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는 김 원장은 보화보육원 원생들 머리손질을 위해 3-4명의 직원과 이종사촌언니와 함께 매월 봉사해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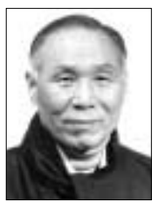
김 원장은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직원들이 힘들었을텐데 군 소리 없이 잘 따라와 주어 오랫동안 봉사할 수 있었다"며 "어린 나이에 들어온 아이들이 머리손질로 깔끔해지고, 성장해 가는 모습을 보면 뿌듯한 마음이 든다"고 밝혔다.

표창장을 전달한 배상택 영북면장은 "우리가 해야 할 부분을 자원봉사로 22년간이나 봉사해오신데 대해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하며 시장님을 대신해 시상하게 되어 기쁘고 앞으로도 많은 도움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원장은 지난 3일에도 보화보육원 원생 40여명의 머리손

김미경 주부명예기자단 영북면지부장 hsd5333@hanmail.net

# '살아 숨쉬는 것'


이 규 임
한국영상제작학회 회장

'역사(歷史)'란 무엇인가? 역사를 놓고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해석한다. 첫째 '역사는 기록(記錄)'이다. '삶'과 '생활'에 대한 기록이다. 역사책을 보면 정치(政治) 경제(經濟) 사회(社會) 문화(文化) 그리고 과학(科學) 같은 순서로 과거에 대한 '역사적 사실(事實)'을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 역사는 사실만을 기록하는 것은 아니다. 신화(神話)도 기록하고 전설(傳說)도 기록한다. '신화와 전설'이 역사의 첫 페이지를 장식하고 있다는 말이다.

역사 이전의 상황(狀況)을 기록할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이다. 어느 나라나 '신화와 전설'의 형식(形式)을 빌려 역사 이전의 상황을 그렇게 기록하는 것이다. '뿌리'를 찾기 때문이다. '근본(根本)'을 찾기 때문이다. '정체성(政體性)'을 찾기 때문이다. "뿌리를 모르면 주장할 수 없고 주장하지 못하면 지킬 수 없기 때문이다."

둘째 '역사는 거울'이다. 우리의 모습을 비춰주는 '거울'이다. 우리의 삶을 비쳐주고 우리의 생활을 비쳐주는 '거울'이다. 역사라는 거울은 과거의 모습만 비쳐주는 것이 아니다. 현재의 모습도 비쳐준다.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현재의 모습'을 비춰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과거(過去)와 현재(現在)와 미래(未來)를 관통하는 '그 무엇'이 역사라는 거울 속에 살아 숨쉬기 때문이다. 그런데 거울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거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울에 비춰지는 내용(內容)이 중요하다는 말이다. 그 사실(事實)이 중요하다는 말이다.

셋째 '역사는 사실'이다. 물론 역사는 사실이다. 사실에 대한 기록이다. 그 기록이 '사실'이기는 하나 그것이 모두 '진실(眞實)'은 아니다. 역사 기록이 모두 진실만을 기록한 것은 아니라는 말이다. 그것은 왜곡(歪曲)될 수도 있고 과장(誇張)될 수도 있는 것이다. 한 가지 사실을 놓고도 그것을 '어떤 관점(觀點)'에서 보느냐에 따라 그 기록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말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역사는 '승자(勝者)의 기록'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넷째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다. 승자(勝者)의 입장에서 기록했기 때문이다. 패자(敗者)에게는 설땅을 주지 않기 때문이다. 승자의 입장에서만 기록하면 진실(眞實)을 볼 수 없다. 사실을 사실대로 기록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과장'되고 '왜곡'될 수 있기 때문이다. '색안경'을 벗고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아야 한다. 있는 그대로 기록해야 한다. '역사에서 교훈(敎訓)을 찾고 역사에서 미래(未來)를 설계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섯째 역사는 '살아 숨쉬는 것'이다. 역사는 죽은 것이 아니다.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역사는 재해석(再解釋)되고 재발견(再發見)되는 것이다. 역사는 이처럼 '살아 숨쉬는 것'이다. 그래서 역사와 대화(對話)한다는 말을 하는 것이다. 역사와 대화를 하는 것은 법고창신(法古創新)을 위해서이다. 온고지신(溫故知新)을 위해서이다. 옛 것을 새롭게 한다는 뜻이다. 옛 것을 계승하고 새로운 것을 창안해낸다는 것이다.

역사에서 '온고'가 중요하고 '법고'가 중요하다. 재해석되고 재발견되는 것이라 해서 사실을 손봐서는 안 된다. 사실을 '왜곡'하거나 '과장'해서는 안 된다. 사실을 왜곡하거나 과장하면 이미 그것은 역사(歷史)가 아니다. 하나의 창작물일 뿐이다. 역사가 소설(小說)로 전락하는 순간이다. 역사가 소설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 '소설이 허구(虛構)'라고는 하나 그것은 방편일 뿐이다. '소설이 허구'이기는 하나 그것이 추구하는 것은 '진실이라는 거울'이다.

진실을 말하기 위해 '허구라는 형식'을 빌렸을 뿐이다. 소설이 지향하는 바도 이러할 진데 역사는 더 말할 것도 없다. '역사는 진실'이어야 한다. 그래서 사관(史官)들이 진실을 기록하기 위해 목숨을 거는 것이다.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이 소중한 이유이다. 세계문화유산(世界文化遺產)으로 지정 받게 된 이유이다. 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인가!

Essay

# 어머님의 외출

윤 순 옥
포천의제21협의회 고문

구순이 가까우신 어머님께서 오랜만에 출타하였다. 몇 년만에 처음인 것처럼 마음이 휑하니 가벼우면서도 허전하다. 평소에 말씀은 없으시지만 시선만큼은 엄하시고 차가울 때도 있었으니까 당신에게 비친 내 모습이 유발한 결과이겠지만 끼니때마다 그래도 마음에 부담이 없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어디를 가셔도 이 삼일을 못 주무시는데 이번에는 따님에게 발목을 잡히시고 일주일이 넘게 계신다.

40년 가까이 모시고 살아온 며느리다. 당신 속으로 낳으신 딸보다 내가 어머님 마음속은 훤히 꿰뚫는다.

아마 매일처럼 집에 가신다고 하셨을게다. 어머님 속을 알면서도 편안한 휴식을 취한 것은 속보이는 며느리가 아닌가 생각하니 죄스럽다.

그래도 할 짓은 다해야 한다. 거실 마루에 커다란 화선지에 그림도 그리고 깊어진 가을밤에 가까운 친구들 불러 수다떨고 박장대소하고 어머님 계시면 가당치도 않은 일이다. 그렇다고 내색하고 못마땅해 하시는 분은 절대 아니다.

표정 없이 침묵하시니 더 어렵다. 고부간의 사이는 우리나라 여성들이 영원히 풀 수 없는 숙제다.

어느덧 나도 며느리가 둘! 지난 내 삶을 돌아보며 현명한 시어머니가 되리라 마음은 한결이다. 그러나 순간포착의 오차에서 생기는 빛의 전광만큼이나 빠른 스파크! 서로의 양보밖에 없다. 흐르는 물처럼 우리 사는 모습에 자연의 순리를 닮아야 함을 알면서도 구순 가까우신 연세에 자리에 눕지 않으시고 아파트 경로당 회장까지 맡으셔서 젊은 사람 제치고 식사준비등 회원관리를 잘도 하시는 우리어머님의 대단함에 가끔은 숨이 차다.

나는 과연 어머님처럼 노후를 보낼 수 있을까 하는 염려 때문에.... 하기야 어머님과 나 부모자식의 인연으로 만났으니 서로의 도리를 다해 상처 드리지 않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자주 각인시킨다.

즐거운 시간은 빨리 가는 법! 따님 댁에서 지루하게 계신 어머님 생각해서 돌아오시는 날 기쁘게 맞이 해드릴 준비나 해야겠다. 워낙이 소식하시는 분이라 어머님 마음만 편안히 맞아드리면 더 무엇이 필요 없을 것 같다. 집에 들어오실 어머님 생각하니 그 뒤의 그림자 같은 내 모습이 보이는 것 같다.

자유 기고

# 한국의 정서

박 옥 석
주부명예기자단 가산면지부장

길가에는 낙엽이 우수수 떨어져 바람에 날려 어디론가 흩어져 마지막 가을을 장식하는 것 같다. 바람은 차갑게만 느껴지고 어깨는 움츠려지는 계절이다. 산을 바라보면 알록달록 옷을 갈아입은 모습이 4~50대의 운치 있는 멋스러움이 보인다. 인생을 사노라면 이 정도의 운치는 있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입가에는 시 한 수가 나올 것만 같다.

가산초등학교는 겨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종합예술축제로 학업의 열의를 마무리하고 1년간 공부한 것을 마음껏 펼친 학생들의 작품과 장기자랑이 펼쳐지고 축구부에서는 일일찻집을 통해서 기금마련에 힘써 11월을 장식하고 있다.

경북중학교는 동문들의 모임으로 마무리하고 곳곳에서 월동준비로 분주한 것 같다. 왠지 내 마음은 쓸쓸한 것 같으면서 한편으로는 세월의 흐름이 빠른 것을 보면서 달력 1장을 놓고 뜻깊고 보람있게 마무리를 잘 해야할 텐데 하는 걱정이 앞선다.

차를 차고 도로를 달리다 보면 바쁘게 횡단하는 시민들의 모습 들녘에는 낙엽이 떨어져 있고 볏짚이 곳곳에 쌓여 있고 김장을 하는 곳이 여기저기 무우 배추가 절여져있고 가는 곳마다 요즘 인사는 "김장했어요? 네 많이 하셨네요, 큰일을 끝내셨네요" 등 주고받는 것이 요즘 생활이다.

매년마다 빠져서는 안 되는 월동준비에 김장철 한국의 고유풍습인 월동준비 한편으로는 멋진 풍습이다. 김장김치는 밭에서 뽑아서 소금에 적당히 절여서 하루정도 절여 놓았다가 이튿날 닦아서 물을 빼고 무채를 썰고 갖은 양념(생강 마늘 고춧가루 젓갈 굴 파.... 등등) 넣고 버무려서 배추 사이사이 적당히 버무려 예쁘게 모아 땅에다 독을 묻고 배추를 하나하나 쌓기 시작해서 다 차 오르면 우거지를 위에 얹고 소금을 뿌리고 뚜껑을 닫아 눈이 오고 나면 눈을 쓸어내고 살얼음 얼은 독 뚜껑을 열고 한 포기 꺼내서 배추 한 잎을 쭉 찢어서 한 입에 넣으면 새콤달콤한 '아 상쾌한 이 맛' 땅속에 묻었을 때에 많이 느낄 수 있는 맛(한국에서만 느낄 수 있는 맛)이다.

가을을 마무리 하면서 고사떡으로 농사를 잘 지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조상들에게 전하는 마음을 동네에 한 접시 떡을 돌려먹는 고유 풍습이 있다. 이것이 한국의 정서다.

자유 기고

# 언니의 도전

용 경 자
주부명예기자

5살 때 일이다. 둘째 언니는 주말이면 김말이 과자를 한 상자 들고 집에 들어오곤 했다. 그럴때면 나는 신이나서 밖에 나가지도 않고 나중에 친구들에게 신나게 자랑만했다.

30년전 우리네 살림은 그랬었다. 집에는 가끔 들르시는 아버지. 시장에서 자판장사를 하시는 엄마를 도와 둘째 언니는 초등학교도 포기하고 서울의 과자공장에 취직을 했던 것이다.

그후로도 언니는 계속 어린 동생을 위해 공장을 다녔고 덕분에 우리 동생 삼남매는 고등학교와 대학을 마쳤다. 언니는 그후로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했으나 형부는 일찍 세상을 떠났고 또다시 가장이 되어 어린 조카들을 키워냈다.

어려서부터 배워온 봉제기술로 작은 공장을 얻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했던 언니는 이제 어엿한 사장님이 되었고 지긋지긋한 일의 전쟁터에서 헤어나 새로운 분을 만나 인생을 꾸며가고 있다.

하지만 배우지 못한 서러움은 50평생 늘 한이 되어 남아 있었다. 언니는 혼자서 회사경영을 하다보면 못 알아 들어도 대충 아는 척 넘기며 어설픈 웃음으로 위기를 넘기며 고개를 돌려야 했던 순간은 지금 생각해도 쉽게 아물지 않는 상처라고 말하곤 했다.

그러던 언니가 50이 넘은 나이에 남들이 14년 동안 이룩한 배움의 문에 뛰어 들었다. 검정고시였다. 낮밤을 책과 싸우며 씨름하더니 지난 8월에 드디어 대입 검정고시 자격시험을 통과한 것이다. 한번의 실수도 없이 일사천리로.... 아! 그 얼마나 뿌듯했던가?

11월16일 수능시험을 치르고 언니는 말했다. "나도 수능시험을 치렀다는 사실에 만족한다. 점수는 기대하지 말라"고 말이다. 그랬다. 언니는 남들이 20대에 경험했을 일을 이제야 해 보았다는 아니 평생 못할줄 알았던 일을 해냈다는 것에 스스로 감격하고 만족하고 있었다.

앞으로 대학교도 졸업하고 언니는 또 다른 도전을 할 것이다. 실버타운을 경영하고 싶다고 했는데 언니는 그보다 더 큰 꿈을 반드시 이루어 내리라 믿는다.

언니의 도전은 내겐 세상을 열심히 살아야할 이유이고 어떠한 어려운 경우라도 극복할 수 있는 소중한 가르침이 되었다. "언니 멋진 대학생활 기대할게!"

포장산업을 선도하는 기업

포천신문 창간 17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비닐쇼핑백, 종이쇼핑백, 각종 비닐포장재 전문생산

포장에도 품격이 있습니다. 대봉매리트는 기획에서 디자인, 인쇄, 가공, 완제품 납품에 이르기까지 전공정을 원라인으로 처리하여 귀사의 제품을 보다 안전하고 품위있게 유지시켜 드리겠습니다.

비닐 쇼핑백

비닐 제품

공장 · 사무실

포천시 가산면 우금리 611-4
Tel. 031)544-0051
Fax. 031)544-0052

대표 : 임 대 섭